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발간등록번호 31-9735026-001271-14
 www.nars.go.kr

지표로보는이슈

제146호 2019년 11월 20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배경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 증대
 - 우리나라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소세가 점점 가속화되어 총 부양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임
 -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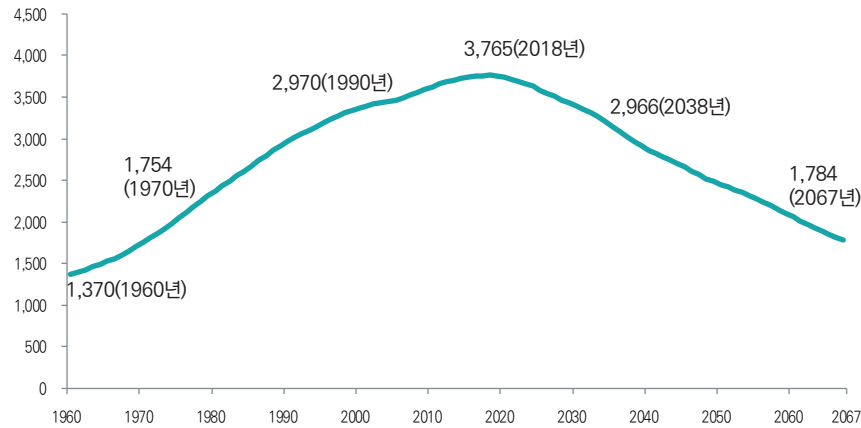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력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 검토 필요



생산연령인구 및 비중 추이 등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단위: 만 명)



[생산연령인구 및 비중 전망]

(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 인구 (A)	5,136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생산연령 인구 (B)	3,757	3,736	3,395	2,865	2,449	2,058	1,784
비중 (B/A)	(73.2)	(72.1)	(65.4)	(56.3)	(51.3)	(48.0)	(45.4)

주: 생산연령 인구, 총인구 전망 등은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1960년 1,370만 명이던 우리나라의 생산연령(15~64세)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8년에는 2,966만 명으로 1990년(2,97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1970년(1,75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7년에는 45.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연령인구 및 비중 추이 등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전망]

(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생산연령 인구(A)	3,757	3,736	3,395	2,865	2,449	2,058	1,784
15-24세(B)	651	583	449	324	341	293	258
구성비(B/A)	(17.3)	(15.6)	(13.2)	(11.3)	(13.9)	(14.3)	(14.5)
25-49세(C)	1,950	1,913	1,690	1,429	1,053	917	823
구성비(C/A)	(51.9)	(51.2)	(49.8)	(49.9)	(43.0)	(44.6)	(46.1)
50-64세(D)	1,156	1,240	1,255	1,113	1,055	847	703
구성비(D/A)	(30.8)	(33.2)	(37.0)	(38.8)	(43.1)	(41.2)	(39.4)

주: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고령인구 및 비중 전망]

(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 인구 (A)	5,136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고령인구 (B)	707	813	1,298	1,722	1,901	1,881	1,827
비중 (B/A)	(13.8)	(15.7)	(25.0)	(33.9)	(39.8)	(43.9)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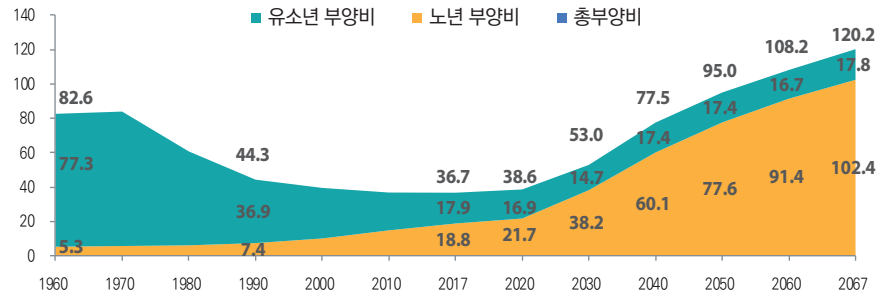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경제활동 인구(25~49세)가 생산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C/A)은 2017년 51.9%에서 2067년 46.1%로 감소하는 반면, 50~64세 인구 비중(D/A)은 2017년 30.8%에서 2067년 39.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30년 1,2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에는 1,8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8%에서 2067년에는 46.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령인구 등의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령인구 등의 부양비 추이 및 전망]

(단위: 생산연령인구 백명당)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및 유소년 부양비 전망]

(단위: 생산연령인구 백명당)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 부양비	36.7	38.6	53.0	77.5	95.0	108.2	120.2
유소년 부양비	17.9	16.9	14.7	17.4	17.4	16.7	17.8
노년 부양비	18.8	21.7	38.2	60.1	77.6	91.4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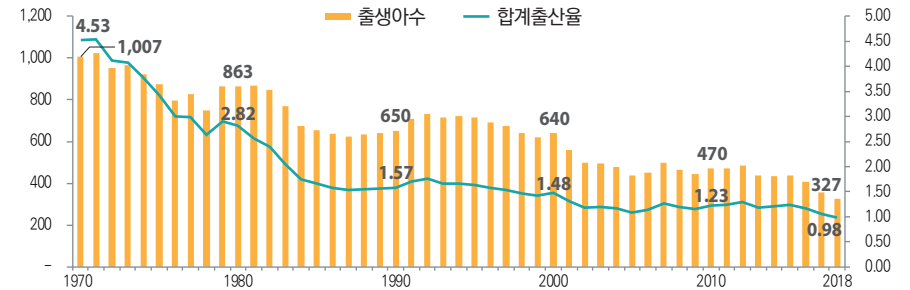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1960년 82.6명에서 2017년 36.7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40년에는 2020년(38.6명)의 2배 수준인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2017년 17.9명 수준인 유소년 부양비는 2067년에도 17.8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017년 18.8명 수준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매우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등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1970~2018)]

(단위: 천명, 명)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천명,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출생아	1,007	874	863	655	650	715	640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구분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생아	439	470	435	438	406	358	327
합계출산율	1.09	1.23	1.21	1.24	1.17	1.05	0.98

주: 2018년 자료는 잠정통계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ecoss.bok.or.kr>)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1970년 1백만 7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990년 65만 명, 2010년 47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특히 2017년부터는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32만 7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한편,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80년 2.82명, 1990년에는 1.57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1998년(1.46명)부터는 1.5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0.98명)에는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관련 통계 사이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